

‘안전 귀국맨 10% 환급’... 편의성 강화 여행자보험 인기

보험업계, 여행객 맞춤 상품 선봬
9개 손보사 작년 신계약 164만건

카카오페이손보, 보험료 환급 상품 출시 8개월만에 70만명 가입 돌파
캐롯도 ‘축하포인트 지급’ 서비스

직장 다니는 30대 A씨는 4월 중 해외 여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여러 혜택이 담긴 상품을 속속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그는 “4월 여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가입하려한다”며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번거로웠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혜택을 살펴보기 편해졌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여러 혜택이 담긴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귀경객 및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자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지난해 개인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64만41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배(199.8%) 성장하면서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181만54건) 수준에 근접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환급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자수 급증에 따른 여행자보험 수요 맞이에 나선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해외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해외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의 10%를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한다. 가입자의 75%가 안전 귀국 환급금을 받았다. 돌려받은 총 누적금액은 1억5800만원을 넘어

섰다.

보험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통해 해결했다. 안전 귀국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험의 효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에는 약 20만명이 가입하면서 자체 월별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추구하는 보험시장의 ‘혁신’이 무엇인지 청사진을 공개했고, 사용자들의 선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5일 ‘안전여행 축하 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고객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축하 포인트를

지급한다.

만약 여행 중 사고가 있었다면 안내되는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가 없었다면 가입 시 결제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롯포인트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엔데믹 이후 관광, 여행 산업이 점차 살아나는 추세 속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해외여행자보험의 인기 배경으로 환급금 등 혜택과 고객 편의성을 꼽았다. 디지털 손보사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저렴한 보험료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안전하게 귀국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객이 상품 가입 시 보장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 조절도 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총선 후 물량 쏟아진다... 전국 3.6만가구 분양

청약홈 개편 마무리... 분양 재개 수도권 1.1만, 지방 1.8만가구 공급

청약홈 개편이 끝나고 4월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지난 25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가능,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신생아 특공 신설 등의 개정된 청약 규칙 시행으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청약 혜택이 커진다. 청약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 중 2만922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 지방은 1만8083가구다. 사·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

등의 순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건립되는 ‘그란츠 리버파크’ 36~180㎡ 407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입지다.

동문건설은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84~107㎡ 총 753가구를 분양한다.

대방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짓는 ‘복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I·II’ 84~141㎡ 2512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유립E&C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원에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84~112㎡ 1294가구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로 단지가 가까이에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인 기장선도 추진되고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 카운티’ 415가구 중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418가구 중 84㎡, 1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금융위, 중소·중견기업 11조+ α 지원

내달부터 신성장분야 저금리 대출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

고금리 여파...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3474건으로, 전달(7만2901건) 대비 573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6만6844건)과 비교하면 9.9%(6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9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가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

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2만9814건으로, 1개월 만에 4655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8만6862건)과 비교하면 49.4%(4만29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채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kdh@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車보험 시간 단위로 가입가능

삼성화재는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

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원하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1일~7일)로만 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개편을 통해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단기간의 교대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또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김주형 기자